

■ 그림 여행



해골, 책, 장미가 있는 바니타스 정물화

(A Vanitas Still-Life with a Skull, a Book and Roses c. 1630)

안 다비츠 데 힘 (Jan Davidsz de Heem 1606-1684)
 목판에 유채 23.2 cm x 34.6 cm 스웨덴 국립미술관

장미의 계절이다. '꽃의 여왕'이라 불리기에 부족함 없는 그 자태와 향기가 초여름으로 달리는 푸른 계절 속에 만개했다. 시선을 돌리는 곳마다 장미가 피어 온통 장미 정원이다.

사랑, 권력, 고귀함, 아름다움, 화려함, 관능, 그리고 신비함 등을 모두 나타내는 한 가지 상징이 있다면 그것은 '장미' 일 것이다. 장미는 문학, 미술, 음악, 그리고 역사 속에 빈번히 등

장하고 향수와 음식 등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해 있다.

이 어두운 그림 속에도 장미가 그려져 있다. 섬세한 꽃잎이 포개어져 활짝 피어난 탐스런 핑크 장미가 한 송이, 그리고 그 옆에 미처 피지 않은 핑크 봉오리가 함께 그려져 있다. 만져보면 마치 꽃잎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너무 세게 찌다면 속절없이 꽃잎이 떨어져 내릴 것처럼 장미는 검은 테이블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걸쳐져 있다.

활짝 핀 장미, 그리고 앞으로 또 피어날 장미는 해골과 같은 화면 속에 그려져 있다. 해골 옆에 배치된 책갈피는 펼쳐지다 말고 접혀졌으며 책 뒤에는 꺼져버린 촛대가 쓰러져 있다. 이 그림을 보며 죽음을 떠올리지 않을 자가 몇이나 될까.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그림,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유행한 바니타스 정물화는 생명의 유한함과 필연적인 죽음 앞에 삶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경고'의 의미를 내포했다. 지금 아름답게 피어 살아 있으나 언젠가 꽃잎이 떨어져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이 화려한 장미꽃처럼 인간의 생은 덧없고 허무하다고 준엄하게 일깨운다.

다가올 소멸을 잊지는 않겠다. 필연코 찾아올 죽음도 부정하지 않겠다. 허나, 곧 사라질 것이기에 더 아름다운 장미. 허무하고 덧없지만 지금 찬란하게 빛나기에 더 소중한 삶. 그래서 뜨거운 태양 아래 마음껏 피어난 오늘의 장미를 더욱 더 사랑한다.

김 동백

OCEYELASH

비밀의기술 오롯한 퀄리티의
 속눈썹 연장 서비스



Special Offer

첫 방문시

"OCeyelash town news"를
 언급해 주시면 \$20 할인혜택
 해드리겠습니다.

Expire date April 2023

<수강생 모집>

한 사람 한 사람 집중적인 수업,
 프라이빗 일대일 수강생 모집 중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
 재수강 이제는 당신의 성장할 기회!

- 한올 한올 정확한 1:1 시술 •
- 100% 고급 재료 사용 •
- 모근 보호시술로 건강한 속눈썹 •

상담 및 예약

714.948.0006

4128 w commonwealth ave.
 #203, Fullerton CA 92833



어바인 Total Care
 임플란트 치과

시니어 스페셜!

65세 이상 메디케어로 받치,
 뼈이식등 구강외과 혜택 가능

메디케어 인증 병원

컴퓨터 가이드 임플란트 시술로 무절개,
 무통증, 빠른 회복, 치과공포 있으신 분
 정맥마취로 자면서 치료 가능



James Kim 치과

949.727.0777

한국어 문의 949-702-7811

113 waterworks way #220
 Irvine, CA 92618

74420 Hwy. 111 Suite 1, Palm Desert, CA 92260
 760.779.5662 (팜스프링 지점)

